5·18 코앞인데…기념재단은 '내홍 중'

정부 내년 기념행사 예산 삭감 대응 방안도 못 세워
내부 갈등에 '5월 정신 세계화' 사업 추진 동력 약화

5·18 기념재단이 위태롭다. 5월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져야할 기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부 갈등으로 5월 정신 세계화를 추진할 동력도 약화되면서다.

당장, 정부의 내년도 원칙 없는 기념행사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세우지 못하는 등 총체적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11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민주화 지원 및 과거사 정리' 분야 예산안에서 기념재단 예산을 올해의 절반인 12억원으로 책정됐다. 기념재단은 애초 24억 원을 요청했었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기념재단이 '5월 정신의 세계화'를 내걸고 추진할 '민주·인권·평화 관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념재단 측은 "특정 항목이 삭감된 것은 아니며 행자부로부터 한시법에 근거한 사업이나 특별사업이 많아 상시법을 근거로 한 사업들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급받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반납하는 등 예산 운용상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정부의 5·18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예산 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념재단이 5·18 왜곡과 폄훼의 심각성을 전한 뒤 미래세대교육과 진실조사, 왜곡 및 폄훼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삭감이 이뤄졌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2억3800만원)와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2억)가 동결된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도 상당하다.

그나마 국민 성금과 희생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기금의 이자 수익도 저금리로 줄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형편이다. 외부적 어려움 외에 내부적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가 조직 전반의 역량저하로 나타났다"며 "일반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꾀하고 5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외부적, 내부적 역량이 모두 떨어진 상태라는 얘기다.

기념재단이 지역 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단 사업 재편 등 7가지 실천 사항을 내걸고 재무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조속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11일 광주YMC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행사위는 정부가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거부하면서 오는 18일 오전 10시 옛 전남도청 앞인 5·18 민주광장에서 별도 기념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화물차, 전선 건드려 정전 피해 누구 책임?

전선 높이 5.7m vs 화물차 4.7m…법원 "한전 과실 더 크다"

4.7m 높이의 화물차가 지상에서 5.7m 높이에 설치된 전선을 건드려 인근 주택들이 3시간 넘게 정전 피해를 봤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5.7m 높이에 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한전 측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한국전력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물차연합회는 한국전력에게 복구비 등 919만원의 20%인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한국전력은 화물차연합회에 1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물차연합회 소속 운전사가 지난 2013년 9월 11일 새벽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타워를 눕혀 실은 25t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전선 및 전주를 건드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높이(4.7m)를 고려하면 사고 지점의 전선 높이가 5.7m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점, 당시 사고로 트레일러에 실린 태양광발전기 손상비용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정했다.

당시 한국전력은 인근 주택 10가구의 정전사고가 발생, 전선 및 전주 복구비로 919만원을 지출했고 화물차연합회는 태양광 발전기 손상비용으로 200만원을 지급했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옛 도청앞 5·18기념식 시민 참여하세요"

35주년 행사위 호소

5·18 민중항쟁 35주년 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오는 18일 국가보훈처 주관 5·18 기념식에 불참하고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독자적인 5·18 기념식을 치르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행사위는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오는 18일 오전 10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독자적으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위는 기념식 파행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식순에 포함만 돼도 참석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던 것과, 대통령 면담까지 무산된 것을 보면 올해도 정부의 제창 배제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일 대통령 면담이 무산됨에 따라 5월 기념행사를 위한 국가보훈처 예산(1억2200만원)도 전액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5·18 피해 당사자와 유족은 물론, 국무총리도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없는 국가 기념식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기념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34주년 기념식이 민주묘지와 구묘역으로 나뉘어 치러지긴 했지만, 정부 공식기념식으로 지정된 지난 1997년 이후 전혀 다른 장소에서 5·18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행사위는 "오월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로 옛 도청 앞에서 독자적인 기념식이 열리는 만큼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 박기웅기자 pboxer@

1년 이상 체벌 '중학생 자살' 부른 교사 법정에 선다

자살한 중학생에게 흡연지도 등의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체벌한 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흡연지도 등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폭행,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을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중학교 교사 A씨(50)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훈육이라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중학교 체육교사 겸 학생부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7월께부터 작년 9월까지 B군과 C군에게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흡연 등을 이유로 손, 나무막대기 등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청소 등을 시킨 혐의다.

A씨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B군은 작년 9월 12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검찰은 A씨가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따른 훈육을 했고 흡연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반성문을 받거나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장 뛰기 등 체력단련을 시킨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체벌행위가 1년 2개월간 60여 차례 걸쳐 행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학생지도 명목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현직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상 가혹행위를 적용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첫 사례여서 A씨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연합뉴스

광주시, U대회 축구장 공사 재개 요청…결과 주목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축구 훈련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 광주시가 대회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광주시가 A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취소·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A사가 지난달 제기했던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마자 제기된 가처분 취소 사건에 따라 이뤄졌다.

법원은 당시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계약 효력을 정지토록 한 바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대회 이미지 실추 및 국제적 위상 추락"등을 내세워 가처분 취소 신청을 냈었다.

광주시는 이날 심문 기일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필드 테스트는 통상 20~30일이 걸리고 6월 20일까지는 인증을 받아야 해 이달 말까지는 공사를 마쳐야 한다"면서 "기존 공사 업체인 B사가 공사를 지속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마을 애경사 상습 윷놀이 도박 섬주민 20명 줄줄이 경찰서행

쌍나팔

○…마을 애경사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섬 주민 20명이 줄줄이 경찰서행.

○…11일 완도경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40분께 완도군 금당면 마을이장(51)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회장에서 판돈 185만원을 걸고 윷놀이를 한 혐의(도박)로 김모(55)씨 등 금당도, 비견도 섬 마을 주민 20명을 불구속 입건.

○…윷놀이 도박판은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에는 도박 전과 4범도 있었다"며 "마을 경조사 때마다 수백만원대의 윷놀이판이 열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신축 원룸 매매

관심물건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음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솔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레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11억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④ 수완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10-6832-9700
010-6834-4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③ 서구 쌍촌동 원룸 11평 운천역 3분 보200만 월32만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⑤ 수완지구 모아엘가앞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융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⑥ 남구 백운동 대흥1차 APT. 24평 보 1천 월 60만 가격저렴 리모델링 완료 매매가 1억1천300만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천만

010-6670-9800
010-6834-4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 상무지구 중심 금융가 도로 현대자동차 뒷편
☑ 이면도로 코너
☑ 엘리베이터 완비,무료주차4대
☑ 주변 주차시설 300대 완비됨

▣ 즉시입주가능,내부시설완비
▣ 학원적합, 보험사무실 적합

적극추천

임대가 보3,000만
월 140만

062-527-76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①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 감정가 6억5천/최저가2억9천(유흥상가)
②북구 본촌동 만성빌딩/3층중1층 (토586㎡, 건726.18㎡) 감정가 14억/최저가9억6천(1층식당)
③북구 중흥동 씨너스전대/10층중1층 (20,032㎡, 건46,96㎡) 감정가2억3천/최저가1억3천(상가)

수익성상가(근린주택)
①광산구 소촌동 (토400㎡, 건294㎡)감정가3억7천/최저가3억(세차장,카센타)
②서구 양동 (180.5㎡, 건259.2㎡)감정가3억3천/최저가2억3천(2층건물/1층상,2층주택)
③목포 산정동 (토63.75㎡, 건199.2㎡) 감정가1억3천/최저가7천100만 (3층건물/1층점포, 2~3층주택)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①나주송월동(복합상가건물,예식장) (토8474㎡, 건11735㎡)감정가152억/최저가68억
②전주완산구효자동 (토502,453㎡, 건689,083㎡)감정가25억/최저가13억(3층상가건물)
③광양시중동 (토767㎡, 건3276,78㎡) 감정가26억/최저가21억(6층건물)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①광산구하남/공장 (토174.3㎡, 건2635.72㎡) 감정가14억/최저가9억5천
②북구 중흥동(토300㎡, 건1235,92㎡)감정가11억/최저가6억2천 (6층모텔)
③북구 월출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458,9㎡) 감정가10억/최저가10억
④광산구 장록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8114,46㎡) 감정가36억/최저가29억
⑤광산구 월계동/무인텔 (토1522,5㎡, 건1999,65㎡) 감정가34억/최저가34억

바닷가 펜션 경매추천 물건
⑥경남 고성시회화면 (토13685㎡, 건867.16㎡) 감정가43억/최저가18억 (펜션,바다근처,건물깨끗 시설좋음)(특수물건)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226-46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①경매 기본교육 +실전위주 교육
②VI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① 오전반 11시 ~
② 오후반 19시 ~ (기본+실전)
③엔피엘 교육, 특별반(상담가능)
(교육동시에 실전투자하여 수익창출 가능)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건설~토목~개발 · 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1 서구 금호동 7층상가 (유흥상가) 건 296㎡ (상권좋음,시설좋음) 감정가 6억6천 → 최저가 2억9천
2 전남영광군 법성면 (3층/근린주택) (토144평,건819평) 1층~2층상가 3층주택(건물 바로앞 도로및 바다) 감정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3 광양시 중동(근린시설) 토232평,건991평 (도로접 상가사무실임대적합) 감정가27억→최저가18억

062-527-7600
010-7384-7800